



국제 기구의 원자력 기자재 조달 시장 진출

— 한국 원자력 산업계의 진출 방안 —

조 대 식

주오스트리아 대사관 1동 서기관

세 계 원자력계에서 국제원
자력기구(IAEA)가 차지
하는 비중은 새삼 설명할
필요가 없다.

2,300여명의 직원을 갖고 연간
예산이 2억3천만달러에 달하는
IAEA는 수많은 유엔 기구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중심 기구 중 하나이다.

이는 단순히 기구의 외형적 규모
가 크다는 점이라기보다 IAEA가 국
제 원자력산업의 표준을 설정하는
중심 기구일 뿐 아니라 국제 정치적
으로도 핵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실질적 중요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원자력 관련 국제 기구 조달 시장

지난 30년간 원자력산업의 급속
한 발전으로 원자력 발전량 기준으
로 8번째 원자력 이용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우리 나라는 IAEA 사무
국과도 여러 차원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1999년 10월에 개최된 43
차 IAEA 총회에서는 지난 20여년
간 우리 원자력 분야 외교의 숙원
과제의 하나였던 현장 6조 개정 문
제가 타결됨으로써 우리 나라는 이
제 당당히 IAEA 상임 이사국이 되
었는데, 이는 원자력 선진국으로 부
상한 우리 나라의 변화된 위상을 반
영하는 것이다.

현재 IAEA 사무국에는 원자력
기술 개발, 안전 및 핵사찰 분야 등
에 총 16명의 우리 나라 원자력 전
문가가 진출하고 있으며, 대(對)개
도국 기술 협력 분야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제반 분야의 활발한 진출
과 성과에 비해 아직 우리나라의
진출이 미미한 분야가 있다면 그것
은 IAEA의 조달 시장이다.

IAEA 사무국은 매년 약 4천만달
러 규모의 각종 원자력 관련 장비 ·
물자를 구매하고 있는데, 그동안 우

리 나라 원자력 산업계의 조달 실적
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IAEA 사무국의 구매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요건은 우선 사무국의 공
급자 목록(Supplier Roster)에 등
록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이 공급자 목록에 등
록되어 있는 6,000여개의 원자력
산업계 업체 중 우리 나라 업체는
오직 3개 업체에 불과한데, 이는
IAEA 조달 시장이 아직 우리 원자
력 산업계에 알려지지 않았음을 나
타내고 있다.

우리 업체의 진출 현황과 가능성

주오스트리아 대사관은 우리 나
라의 대외 통상 진흥을 위해 새로운
시장 개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
엔나에 소재한 주요 국제 기구의 조
달 시장이 잠재력이 있는 새로운 시
장이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그동안
약 2개월에 걸쳐 비엔나에 소재한

IAEA · CTBTO(핵실험금지기구) ·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등 주요 기구 구매 부서의 책임자와 간담회 등을 통해 우리 업체의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는 한편 진출 방안을 모색해 왔다.

그동안의 노력을 통해 얻은 1차적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 기구 조달 시장이란 무시할 수 없는 상당한 규모의 시장이며, 비엔나에 소재한 16개 국제 기구 중 IAEA · CTBTO 등 2개 원자력 관련 기구의 연간 구매량만도 약 1억달러 수준에 달하고 있다.

둘째, 현재까지 이러한 국제 기구 조달 시장에 우리 한국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최근 수년간 0.01% 이하에 불과하다.

셋째, 우리 원자력산업의 기술 수준 및 발전 단계, 2대 원자력 관련 기구인 IAEA 및 CTBTO에서 우리 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정치적 위상, 재정적 기여도 등 제반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진출 가능성이 상당히 큰 잠재 시장이라는 점이다.

재정적 기여도 면에서 한 가지 예를 든다면, IAEA의 경우 우리나라가 정규 분담금 약 150만달러 이외에 기술협력기금 등 자발적 기여를 포함, 매년 약 200만달러를 기여하고 있다.

물론 우리의 분담액에 상응하여 우리 업체가 조달 시장에 비례적으

로 점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의 기여 규모에 비해 조달 시장 점유율이 너무 낮다는 것은 여전히 아쉬운 점이다.

효과가 기대된다.

어찌보면 이러한 상징적 효과가 실질적인 수출 증대 이상의 중요성이 있을 수도 있다.

실례로서 최근 IAEA 사무국의 핵사찰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감시 장비 중 원격 탐지 체계(Uiversal Digital Surveillance System)에서 우리 업체가 최종 사업자 2개 업체 중 하나로 선정된 바 있는데, 동 업체는 회사 홍보에 IAEA 감시 장비 공급 최종 사업자 선정 사실을 활용하고 있다.

국제 기구 조달 시장 진출 필요성

이러한 잠재된 가능성을 현재화 시킴으로써 우리 원자력 산업체가 IAEA 및 CTBTO의 구매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 원자력 업체가 이러한 국제 기구에 진출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심을 갖는 데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먼저 우리 업체의 진출 필요성을 간략히 살펴보겠다.

왜 진출해야 하는가는 첫째로,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원자력 기술 및 가자재 공급 능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양대 원자력 관련 기구에 대한 조달 점유율이 전무 하기 때문이다.

둘째, 1억달러 규모의 조달 시장 자체만으로 그리 작은 시장 규모는 아니라는 점이다.

셋째, 조달 물량 자체는 그리 크지 않다 하더라도 IAEA의 공급자가 될 경우 갖는 상징적인 효과가 크다는 점이다.

원자력 업계 최첨단 기술의 집약지이며 세계 원자력산업의 표준을 설정하는 중심 기구인 IAEA의 공급자가 된다는 것은 세계 원자력 업계에서 그 공신력을 높이는 부수적

진출 방안

이러한 기대 효과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원자력 산업체가 IAEA 및 CTBTO가 구매하는 장비와 물자의 공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접근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첫째, 동 국제 기구의 공급자 명부(Vendor Roster)에 등록하는 것이 기본 요건인데, 국제 기구의 구매 부서는 일단 수요 발생 시 Roster에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구매 협상을 시작하게 되므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입찰 정보 자체의 입수가 곤란하게 된다.

둘째, Roster 등록은 기본 요건이기는 하나 등록만 해 두고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정도로는 공급자 선정 가능성이 희박하며, 적극적인 수



출 노력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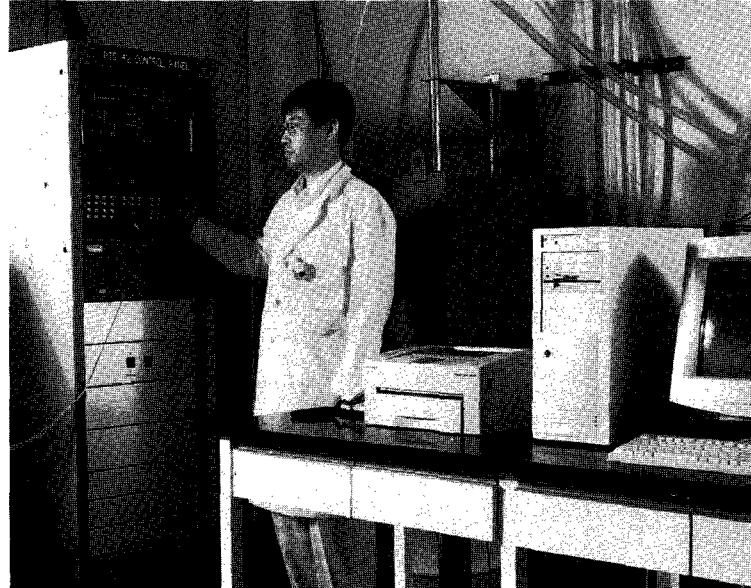
선진국 업체들의 경우 수시로 자사 생산 품목 소개 카탈로그를 국제 기구 구매 담당자들에게 보내거나 또는 직접 비엔나를 방문하여 품목 소개를 위한 브리핑을 하는 것으로 파악된 바, 이러한 일부 선진국 업계의 경우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원자력 관련 국제 기구의 경우, 구매 품목의 특성상 공개 입찰이 되더라도 소수의 1~2개 또는 2~3개 업체만이 고려 대상이 되며, 경쟁이 없이 단독 공급자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독점 공급 또는 소수 업체의 경쟁 관행은 품목에 따라 기술 능력이 소수 업체로 제한된 경우이거나, 소액 단품종 수요가 지배

하는 시장 특성상 관심 표명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 하며, 이러한 특성을 잘 활용하여 개별적인 접촉 활동을 전개한다면 우리 업체의 진출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일부 구매 부서 담당자들은, 경쟁 업체들의 접근이 없기 때문에 일부 독점 공급 업체의 독점적 공급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고 하면서, 원자력산업에서 상당한 비교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한국과 같은 국가의 업체들이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을 할 경우 진출 잠재력이 많을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현재 IAEA 사무국에는 원자력 기술 개발, 안전 및 핵사찰 분야 등에 총 16명의 우리 나라 원자력 전문가가 진출하고 있으며, 대(對)개도국 기술 협력 분야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제반 분야의 활발한 진출과 성과에 비해 아직 우리 나라의 진출이 미미한 분야가 있다면 그것은 IAEA의 조달 시장이다. IAEA 사무국은 매년 약 4천만달러 규모의 각종 원자력 관련 장비·물자를 구매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나라 원자력 산업체의 조달 실적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구체적인 방안의 예를 한 가지 들자면, 한국 원자력 산업체의 협의체인 한국원자력산업회의 또는 국제 기구 진출에 관심을 가진 몇몇 업체들이 비엔나를 방문하여 IAEA 및 CTBTO의 구매 담당 부서 및 대개도국 기술 협력 사업 실시 부서 등을 대상으로 우리 원자력 업체들의 제품 설명회를 갖고 또 담당자들과 직접 우리 업계의 진출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수년간 IAEA 및 CTBTO가 구매한 주요 장비 등 구매 품목 현황에 관한 각종 자료와

Supplier Roster 등록 양식 등은 외교통상부·과학기술부 및 한국원자력산업회의에 이미 송부하여 관심 업체에게 제공토록 하였다).

만일 한국원자력산업회의 등이 주관이 되어 이러한 한국 원자력 업계의 제품 설명회를 개최한다면 우리 대사관이 설명회 개최를 주선할 수도 있다.

아직 미지의 대상인 원자력 관련 국제 기구의 시장을 개척하려는 우리 원자력 산업체의 노력을 결코 허사가 되지는 않으리라 생각하며 우리 원자력 산업체의 관심을 기대한다.